



완화 돌봄 치료란 무엇인가요?

완화 돌봄 치료는 가톨릭이 지지하는 임종 환자 돌봄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성하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연민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과 심한 질병을 앓는 경우에도 삶은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병이 진행되는 동안 위로와 보살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증 관리는 완화 돌봄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인과 그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안녕도 중요하게 다루는 다면적 관리입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병의 초기에도, 치유가 불가능한 임종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고, 병원, 가정, 장기요양원과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될 만한 정보들

호프라인 (희망의 전화):
416-619-5700

웨어라이프의 자금 일부 지원

지역 사회내에 있는 호스피스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호프라인(희망의 전화) 416-619-5700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 성함과 전화 번호를 남겨주시면 가능한 빨리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 전화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위급상황 또는 응급 사태를 위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911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www.archtoronto.org/HopeLine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토론토 대교구-완화 돌봄 치료(임종 환자 돌봄)

www.archtoronto.org/PalliativeCare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 - 희망의 지평선: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가톨릭 본당을 위한 지침서

<https://bit.ly/HorizonsOfHope>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 - 완화 돌봄 치료

<https://bit.ly/PalliativeCareCCCB>

참조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24-2325.
- 프란치스코 교황, 2024년 5월 21-23일 토론토에서 열린 “희망의 서사를 향하여: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국제 종교 간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vatican.va)
- 교황청 신앙교리부, 중환자와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사마리타누스 보너스 (착한 사마리아인) (2020년 7월 14일, vatican.va)
- 같은 책



Archdiocese
of Toronto

완화 돌봄 치료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

“질병과 죽음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돌봄 제공자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완화 돌봄 치료는,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형제자매들과의 연대감과 친밀감의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2024년 5월 21-23일, 토론토에서 열린 “희망의 서사를 향하여: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국제 종교 간 심포지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가자들에게 하신 말씀



왜 완화 돌봄 치료를 선택하나요?

- 완화 돌봄 치료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돌봄은 죽음을 재촉하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 완화 돌봄 치료는 통증을 관리하여 개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증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거나 자연사할 때까지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완화 돌봄 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종교적 요구를 가진 전인적 인간의 완전성과 성스러움을 인정합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전문가, 가족, 자원봉사자 및 더 광범위한 공동체가 협력체를 이루어 임상 치료 전문 지식 및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한 명의 의료인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완화 돌봄 치료는 이해받는 환경안에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감정을 풀어내어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두려움, 불안, 외로움, 무력감 등)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장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로움이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화 돌봄 치료는 사람들을 보다 넓은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도록 하고, 마지막 날들을 고립, 외로움, 통증과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완화 돌봄 치료는 영적으로 유익한 방법입니다. 죽음의 과정과 병자성사와 기도예 함께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순응과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하느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집니다.

의학적 조력 자살(MAID)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흔히 “의학적 조력 자살” 또는 “MAID”라고 불리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일상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가톨릭 신자들은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신성합니다. 죽음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방법과 동기가 어떻든, 고의적인 안락사는 살인죄이다.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살은 정의와 희망과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살을 금지한다.”¹라고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인간을 더 이상 보살핌과 존중을 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저버리려는 문화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패”²라고 말씀하십니다.
- 인간의 연민적 사랑은 죽음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픈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행하며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고통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³

- 죽어가는 사람들은 회심과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는데, 특히 병자성사를 통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 죽음을 요청하는 것은 종종 사랑과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탄원이거나, 무력감과 절망의 표현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잘못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환자의 이런 생각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히 이용합니다.
- MAID(의학적 조력 자살)는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두고, 죽음의 체험을 포용하고,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며,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이 과정을 “단락시켜” 가족과 친구들에게 뒷수습을 떠맡기게 합니다.
- 사회에서, 살인이 “옳은 일을 한 것, ” “동정의 조치” 또는 “적절한 일”로 여겨질 때 생명 자체에 부여된 가치는 축소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돈, 라이프 스타일, 또는 자원의 이기적인 사용이 생명보다 가치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의료 서비스의 근본 원칙에 모순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모든 사람(의사, 간호사, 친척, 자원봉사자, 사목자)은 사람이 자연사할 때까지 사람의 생명을 포용하고, 보호하며, 증진함으로써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최고 수준을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끼거나 그들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MAID (의학적 조력 자살)**는 답이 아닙니다. 사랑, 믿음과 연민 어린 돌봄이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줄 것입니다.